

이개혈종에 대한 시술 후 Balloon을 이용한 압박처치법

서울 위생병원 이비인후과
권영하·성주병·차형근·장백암·박수만

Compression Dressing Using Balloon on the Management of the Othematoma

Young Ha Kwon, M. D., Ju Byoung Seong, M. D.,
Hyoung Keun Cha, M. D., Baek Am Chang, M. D., Soo Man Park, M. 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eoul Adventist Hospital

= Abstract =

The continuous, firm pressure dressing enough to prevent any further accumulation of blood and exudate is important factor to achieve good results of the treatment of the othematoma.

A simple, safe, effective method of pressure dressing is presented. It is using after aspiration or I & D. By this method, recurrence of the othematoma will be markedly reduced.

KEY WORDS : Balloon · Othematoma

서 론

외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개혈종 환자의 치료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흡입천자나 절개배액은 흔히 시행하는 간단한 방법이나, 시술 후의 압박처치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서 재발을 가져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저자들은 Epistaxis control에 사용되는 Balloon을 이용하여 압박처치를 시행해 본 결과, 좋은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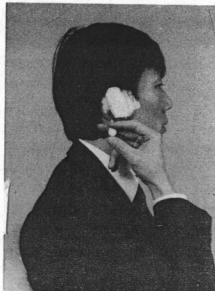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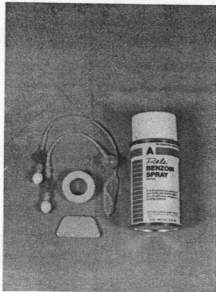
1989년 4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서울 위생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내원하여 치료받았던 이개혈종 환자중 16례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초발환자는 9례이었고 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재발한 경우는 7례였다. 7례중 3례는

반복적 흡입천자 후, 4례는 절개배액 후 재발한 경우였다. 16례중 3례는 손으로 귀를 자주 만진 후 발생했고, 2례는 이개의 외상에 의해, 나머지는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으나 대개가 경도의 이개혈종이었다. 발생부위는 주상좌에 생긴 경우가 7례, 이개강에 6례, 삼각좌에 3례 순이었다. 남녀별 빈도는 남자 12명, 여자 4명이며, 나이는 15세부터 56세까지의 활동층 연령이었다. 혈종 발생 후부터 내원까지의 기간은 2일부터 2개월까지 다양하였다.

치료방침은 초발환자의 경우는 전부 흡입천자를, 재발한 경우는 전부 절개배액을 시행한 후, Balloon을 이용한 압박처치법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압박처치법에 필요한 기구는 먼저 Epistaxis control에 사용되는 Balloon과 반창고의 점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Benzoin spray, 점착력이 좋은 반창고 정도이다.

먼저 이개를 멸균 소독한 후 16~18 gauge



needle로 흡입천자 하거나, I & D를 시행한 후, Furazin gauze를 얇게 덮은 뒤 gauze로 압박해야 할 부위에다 단단히 채운다. 그 다음 약간의 공기가 들어간 상태의 Balloon을 그 위에 얹고 Balloon을 압박하기 위해 귀모양으로 만들어진 딱딱한 shield를 Balloon 위에 덮은 뒤 이개 주위에 Benzoin spray를 골고루 넓게 뿌린다. 이때,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을 gauze 등으로 잘 가려야 한다. 그 다음 반창고로 단단히 붙인 후 이개에 충분한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공기를 주입시켜 ballooning 시킨다. 그 뒤 balloon이 눈에 띄지 않도록 덮어준 후, ballooning 시키는 방법을 환자에게 가르쳐서, 흡수나 압박감이 줄어들면 공기를 더 주입하도록 지시한 후 귀가시킨다.

치료기간 동안 광범위 항생제 및 소염제를 투여하였다. 첫 시술 후 3일만에 내원케 하여 dressing을 하였고, 일주일 뒤 balloon을 제거 하면서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 후 매주마다 2 회 내원케 하여 재발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 과

전례에서 재발이 없이 잘 치유되었다. 단, 흡입천자한 1례에서 balloon이 약간 느슨해져서 재발하여, 시술 후 3일째 내원시 다시 흡입

천자를 시행하였다.

치료기간중 환자들은 별다른 고통이나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불편감도 없었으며, 또한 합병증은 전혀 없었다.

단, 본원에서 치료받은 대상자들은 정도가 심하거나, 아주 넓은 범위에 퍼져있는 경우는 없었다.

고 찰

이개혈종은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으로서, 이개에 잦은 충격을 받는 레스링선수나 복서에 자주 볼 수 있으나, 별다른 원인없이도 잘 발생한다.

이개혈종은 피부가 연골막에 단단히 부착되고 또 피하조직이 없는 이개 전면에 잘 발생한다. 주로 이개에 비스듬히 가해지는 외력에 의해 연골과 연골막 사이에 shearing force가 작용해서 둘 사이가 분리되면서 체액이 고여 seroma가 형성되거나 혈관이 파열되면 hematomas가 형성된다.

이 혈종은 서서히 흡수되고 clot이 남는다. 이 clot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fibrous tissue로 대체되며, 이 fibrous tissue는 cartilage로 대체되기도 한다.³⁾ 이 fibrous tissue나 cartilage에 의해 두껍게 변형된 귀를 "cauliflo-

wer ear"라고 하며, 외관상 보기가 좋다. 이때 혈종을 완전히 제거한 뒤 압박처치를 잘하면 깨끗이 회복이 된다. 그러나, 압박처치가 잘되지 않으면 체액이 연골과 연골막 사이에 스며들어 재발의 원인이 된다. 또, 혈종에 세균이 감염되면 연골염, 연골막염, 연골의 괴사까지 올 수 있다.

이개혈종의 치료법은 근래에는 vacuum tube를 이용한 연속배액법¹⁴⁾, ultraviolet을 이용한 치료법¹⁵⁾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외래에서 가장 간단히 그리고 흔히 시행하는 방법은 흡입천자법과 절개배액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수술 후의 비효과적인 압박처치법으로 많은 재발율을 가져왔으며, 좀 더 효과적인 압박처치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Stuteville¹⁶⁾는 flexible colloidin법을 시행하였고, 국내에서는 박²⁾ 등이 colloidin cotton cast를 이용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상당한 재발율을 보였다. Schuller⁷⁾ 등은 치과용 원통형 솜을 이용한 Mattress suture를 시행하였고 Giffin⁸⁾은 Cotton bolster와 보청기를 이용한 압박처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개 수술이 번거롭고, 통증을 수반하거나, 재발율이 높거나, 혹은 연골염 등의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어서 외래에서 1차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주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conventional pressure dressing의 경우는 flexible한 이개의 성질때문에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너무 강한 압박은 연골의 괴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 비록, 알맞은 정도의 압박처치를 하였더라도 시간경과에 따라 압력이 떨어져 느슨해지면 효과가 떨어지고, mastoid dressing의 경우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감을 주게 된다.

저자들이 고안한 balloon에 의한 압박처치법은 먼저 balloon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lesion 전체에 강하고도 부드럽고 고른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수 있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압력의 정도를 마음대로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고, 간혹 압력이 떨어질 경우 언제라도 환자 자신이

공기를 주입하여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경제적이며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 non-invasive하며 외래에서 간단히 시술하기에 적합하다.

결 론

저자들은 16례의 이개혈종 환자를 흡입천자나 절개배액 후 epistaxis control에 사용하는 balloon을 이용하여 압박처치법을 시행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Reference

- 1) 신시옥, 전시영: 폐쇄 배액 장치를 이용한 이개혈종의 치료법. 한이인지 32(5): 770~773, 1989.
- 2) 박순일, 윤강목, 양오규 등: Colloidin-Cotton Cast를 이용한 이개혈종 환자의 치료에 관한 고찰. 한이인지 25(2): 306~310, 1982.
- 3) Pandys NJ: Experimental production of 'cauliflower ear' in rabbits. Plast Reconstr Surg 52: 534~537, 1973.
- 4) Eliacher I, Golz A, Joachims HZ, et al: Continuous portable vacuum drainage of the auricular hematoma. Am J Otolaryngol 4: 141~143, 1983.
- 5) Lele, DN: Ultraviolet in hematoma and perichondritis of the auricle. Arch Otolaryng, 79: 33, 1964.
- 6) Stuteville OH, Janda CA, Pandya NJ: Treating the injured ear to prevent a cauliflower ear. Plast Reconst Surg 44: 310~312, 1969.
- 7) Schuller DE, Dankle SD, Strauss RH: A technique to treat Wrestler's auricular hematoma without interrupting training or competition. Arch Otolaryngol Head

Neck Surg 115 : 202~206, 1989.

- 8) Giffin CS : The Wrestler's ear (Acute Auricular Hematoma). Arch Otolaryngo
Head Neck Surg 111 : 161~164, 1985.